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Hitler)의 정치 이념에 따른 인간관(人間觀) 비판
The Criticism of the Human View Founded on the
Political Ideology of Hitler from
Christian Ethicality Standpoint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iewpoint of humanity of Hitler and national socialists which was revealed in various political ideologies and social policies pursued by Germany's Third Reich and to criticize such viewpoint from Christian ethicality standpoint.

At the time, dictatorship served the basis for Germany'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centering around the ideology of national communities, anti-Semitism, living space ideology, racism and social Darwinism. Some of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Hitler and his followers committed the war of aggression and genocide against other peoples and nations on the basis of the shallow-minded elitism formed by selfish group consciousness. However, the Biblical view of humanity pursues mutual respect, inclusive and open communities in a peaceful relationship, rather than exclusive, rejective, or hostile attitude for reason of ethnic or racial backgrounds.

Second, Hitler and national socialists committed national crimes of massacr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nd disabilities as 'worthless lives' based on economic value, as well as slaughtering a lot of Jews based on eugenic racism. However, the Christian viewpoint of humanity is based on dignity and noble value of human beings and basically supported by the twin pillars of the order of creation and salvation ministry in the infinite love and providence of God, not the conditional and

*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2018년 08월 10일 접수, 09월 01일 최종수정, 09월 05일 게재확정

relative concepts claimed by the Hitler's dictatorship or philosophers.

Third, Hitler and national socialists massacred myriads of human beings, destroying the nobility of human life, and even committed suicides in seeking final resolutions of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s, disputes, etc., as they considered the 'death' as extinction based on their belief in materialism or atheistic existentialism.

However, the Bible attributes the death to the sin of human beings and declares that there is the strict judgment by God after death. In addition, the life in this world and the life after death are linked by interrelationships. Particularly, the act of taking away the life, whether it is one's own life or other person's life, is considered a serious challenge to the Creator who is the Master of life and is regarded as a serious sin because human beings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Finally, the utilitarianism or secularism have been coming to the fore gradually these days in coming to grips with social issues associated with life ethics, such as euthanasia, artificial abortion, capital punishment, suicide, etc.

Constant discussions and study would be very imperative, which aim to restore the distorted humanity and human dignity by criticizing the spirit of the times, where the life, existential value and meaning of human beings are judged increasingly from the prism of rationality, economic feasibility, and productivity, based on the Christian viewpoint of ethicality.

Key Words : Christian ethics, human dignity, Hitler, national socialist, human view

1. 서론

지난 2018년 1월 31일 독일연방의회는 메르켈(A. Merkel) 총리와 12개국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중에 히틀러 시대(1933-1945)에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가졌다. 이는 헤르초크(R. Herzog, 1934-2017) 전(前) 대통령이 1996년부터 공포하여 매년 1월 27일을 나치 독일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켰다. 1945년 1월 27일은 히틀러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chwitz) 강제 수용소가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대(Red Army)의 진주로 해방된 날이었다. 이날 연방의회 기념식에는 첼로 연주가이며, 1943년 12월에 범죄자로 판결을 받아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갔던 라스크 발피쉬(A. Lasker-Wallfisch, 1925~현재)가 기념사를 했다. 당시 그녀는 첼로 연주자라는 이유로 수용자들이 강제노동 현장으로 행진할 때에 연주를 하는 소위 '소녀 오케스트라(Maedchenorchester)'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1944년 11월에 그녀

의 두 언니마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베르겐 벨젠(Bergen-Belsen)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날 라스크 발피쉬는 기념사에서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이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아울러 메르켈 독일총리도 지난 1월 27일자 팟캐스트(podcast)를 통하여 반유대주의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적대주의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였다(독일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시대나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멸절(Extinction)의 시대라 일컫는 고대시대에서 그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조차도 국가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유기나 살해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기형(奇形)적인 신생아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살해 대상이 되었고, 당시 대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Sokrates, B. C. 470~B. C. 399)와 플라톤(Platon, B. C. 427~B. C. 347)조차 같은 인식을 가졌다. 장애인들은 군복무, 정치나 혹은 경제에 참여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무용한 존재로 분류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의술의 신(神)으로 등장하는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와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B. C. 460~B. C. 377)도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적 행위를 반대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잔인한 매질을 하여 성곽 밖으로 추방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이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벌을 내리는 신(神)을 달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기원전 약 900년경 고대 스파르타(Sparta)의 신생아는 사회공동체 수용 대상 여부는 마을의 원로회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당시 철학자이자 전기 작가였던 플루타르코스(Plutarch, A. D. 45~A. D. 12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마을의 원로회는 아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아이가 건강하고 풍채가 좋은 경우에는 원로회가 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약하고 흉한 아이들은 즉시 이른바 '유기법(遺棄法)'에 의거하여 그리스의 타이게투스(Taygetos) 산의 깊은 협곡 속으로 던지도록 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 C. 384~B. C. 322)도 허약아나 장애아동의 양육은 법적으로 금하도록 하였고, 사회적으로 이상형에 부합되는 건강한 아이에게만 생명권과 양육권이 보장되었다(Stadler, 1998; Mattner, 2000).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Seneca, A. D. 4~A. D. 65)에 의하면 로마 사회에서도 지적이나 지체장애인들에 대

한 살해는 세간에서 흔하게 행해진 일이었다(Goffman, 1990).

광견(狂犬)은 죽여야 한다. 사납고 통제가 어려운 황소는 때려 눕혀야 한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가축은 다른 무리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칼을 들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형적으로 출생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익사시킨다. 필요 없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들로 부터 격리하는 것은 화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理性的)인 행동이다.

비록 생존권이 부여된 장애인이라도 노예 시장에서 매매의 대상이 되어 장애나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소위 ‘광대시장’(Narrenmarkt)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가장 불품없는 장애인에게 오히려 높은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였다(Mattner, 2000).

한편 중세시대는 기독교 사상 중에 ‘이웃사랑’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초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는 등 멸절의 시대인 고대에 비하여 자선과 보호의 대상으로 생명권이 인정되고 기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인식과 실천적인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도 일부 부정적인 인간관도 존재하였는데, 즉 장애아란 악마가 바뀌치기한 아이라 믿거나 장애는 조상이나 당사자의 죄에 대한 신이 내린 벌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질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 학대나 살인도 허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연시(年市)에서 어릿광대로 경제적이나 유희의 수단이나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중세 말기에는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구빈원(救貧院)에 입소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하였다(Fengler/Jansen, 1987). 사실 고대시대에 비하여 중세는 기독교사상을 바탕으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폭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고 국가적인 정책도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대시대를 지나 중세의 자선과 보호의 시대를 거쳐 근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 관련 인식이나 정책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점점 비관적이어서 특수교육 무용론(無用論)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소위 ‘제2의 멸절기’인 히틀러 정권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목사와 갈렌 추기경(Clemens Augustinus Graf von Galen, 1878-1946) 등 독일교회를 중심으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 등을 앞세운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수많은 유대인과 장애인들을 대량 학살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처참히 무너졌다. 인류 사회가 산업화, 공업화, 정보화 및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나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시

대에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이 합리성이나 경제성 또는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인간관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대시대나 나치스 정권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가치와 의미가 임의의 조건적,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인정된다면, 멸절의 시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재현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존재할 것이다(김기홍, 2014).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소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개월 만인 4월 초에 3천여 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하여 연명 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하였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특정 질환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자가 약 14,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MBN 뉴스, <http://mbn.mk.co.kr>). 그 밖에도 호주의 104세 과학자였던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l)박사가 불치병이 아님에도 삶의 무의미를 느껴 안락사(조력자살)를 위해 비교적 안락사가 자유로운 스위스에서 5월 10일 바젤의 안락사협회인 라이프사이클(Lifecircle)에서 진정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크리스천 투데이, <http://www.christianoday.co.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독일 히틀러 독재정권의 인간관을 그의 주요 정치이념과 사회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오늘날 왜곡된 인간 존엄성 사상이 점점 팽배한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 속에서 이를 올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작은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히틀러의 주요 정치이념과 사회정책을 바탕으로 살펴본 인간관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오스트리아에서 세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03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1905년에는 성적미달로 실업계 중등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를 중퇴하고 특정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어 1906년 린츠(Nin茲)의 어머니에게 갔다. 그러나 1907년에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빈(Wien)으로 옮겼고, 빈(Wien)예술

대학에 두 번이나 입학에 실패하였다. 이에 그는 고이수당과 자신의 그림 판매를 통해 생활하였고, 1913년까지 노숙자 숙소 등지에서도 기거하였다(Friedlander, 2001). 이처럼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여러 역경의 삶 중에서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사회적 다윈주의나 인종우생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등을 통하여 급진적 반유대주의나 반자유주의, 반공산주의 등의 사상으로 이미 세계상(世界像)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는 시종일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및 인종주의적인 사상을 추종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특히 게르만인의 소위 ‘군주적(君主的, germanische Herrenrasse) 인간관(人間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13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뮌헨(Muenchen)으로 이주하고,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병으로 바이에른(Bayern) 연대에 배속되어 여러 번의 부상에도 전령으로서 공을 인정받아 철십자훈장을 받았다. 북 독일의 야전병원에서 종전(終戰)을 맞이한 히틀러는 이곳에서 독일의 패배나 휴전체결이 모두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들의 계략과 배신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였다(Wolgast, 2009).

1919년에 새롭게 창당된 독일노동자당(Deutsche Arbeiterpartei: DAP)에 입당하였는데, 특히 반유대주의적인 당의 노선이 그의 사상과 일치하였다.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 기법으로 1920년 개명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NSDAP)의 선전부(Propagandaobman)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그는 점차 정치적인 활동무대를 넓혀 당은 결국 ‘히틀러운동(Hitlerbewegung)’의 중심지로 되었는데, 특히 자신의 세련된 수사학을 바탕으로 베르사이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이나 민주 공화국 체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문제들에 집중하여 정치선동을 함으로서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영입되었다(Hufton, 1999).

1921년 7월 그는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당수로 전권을 장악하였고, 1923년 11월에는 ‘히틀러 쿠데타(Hitlerputsch)’를 통하여 먼저 바이에른(Bayern)을 접수한 후 독일제국의 권력을 강탈하여 바이마르(Weimar)공화국 전복을 시도했지만, 반란죄로 체포되어 5년의 금고형을 받아 약 1년 후에 특사로 조기 출소하였다. 그는 수감기간에 많은 책을 읽었고, 또한 무모한 정치적 야망과 극단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나의 투쟁(Mein Kampf)’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히틀러는 인종적으로 순수한 소위 ‘대(大)게르만족의 지도자 국가’(Grossgermanischer Fuehrerstaat)를 창설하여 자칭 다

른 열등한 혼혈종이나 민족들 위에 군림하고자 갈망했다. 당시 독일의 제일 과제는 독일국민들의 삶에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사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후 출소한 히틀러는 쿠데타로 금지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 AP)을 재건하였고, 이 당을 거대정당으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승계하려는 계획은 1929년까지는 선거 패배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 초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독일 사회 분위기는 서서히 히틀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었다. 1932년 봄 제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우파정당의 후보로서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1847~1934)에게 패배했지만, 1/3이상의 상당한 득표를 하였다. 또 같은 해 제국의회 선거에서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이 제1당으로 등극하여 마침내 수상으로 임명되어 수개월 내에 합법적으로 독재자로서의 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Klee, 1985).

더군다나 1933년 2월 27일 제국의회 건물에 대한 방화사건으로 다양한 법령이 공포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공포 정치적 행정시스템 가동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실시된 전권위임법(Ermächtigungsgesetz)의 가결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회운영이 중단됨으로서 독재체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는 독일국방군(Reichswehr)을 비롯하여 특히 나치스 돌격대(Sturmabteilung: SA)나 나치스 친위대(Schutzstaffel: SS)를 자신과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이념과 목적 실현을 위한 폭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유럽동쪽으로의 영토를 확장하여 독일국민들을 위한 이른바 ‘생활공간’(Lebensraum)을 마련하고자 제2차 대전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히틀러의 망상적 정치이념은 결국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대한 공격명령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약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특히 유대인, 장애인, 집시민족 등이 대량 학살을 당하였다. 1945년 4월 25일 연합군의 베를린 포위로 독재자는 4월 28일과 29일 사이에 브라운(Eva Braun, 1912~1945)과 결혼식을 거행한 후에 4월 30일 그들은 총통전용 지하 방공호(Fuehrerbunker)에서 자살을 하였고, 독일 국방군은 19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에 이르렀다(Friedlander, 2001).

이처럼 히틀러 정권(1933~1945)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상흔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히틀러의 인간관을 포함한 주요 세계관은 1925년과 1926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인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와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정책노선이며 1920년 2월 24일 뮌헨(Muenchen)에서 히틀러가

선포한 ‘25개 조항 강령’(25-Punkte-Programm)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제3제국 시대의 정치이념과 이에 따른 사회정책들은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사상을 비롯하여 반유대주의, 생활공간(Lebensraum)주의, 사회적 다윈주의 및 인종주의, 반의회정치주의, 지도자 중심(우상)주의(Fuehrerprinzip), 반공산주의, 반자본주의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히틀러의 인간관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주요 정치 이념과 사회정책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민족공동체 사상은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 독재정권의 국가질서와 세계관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목적이었다. 그들은 민족공동체를 계급적 대립이나 신분상의 투쟁이 없는 혈통상의 연합체, 공동의 운명 혹은 공동의 정치적 신념에 바탕을 둔 민족의 생활공동체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민족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혈통적으로는 아리아족이어야 하고, 사상적으로는 민족사회주의에 동의하여야 했다(Jeffrey, 2000). 1933년 10월 1일 히틀러는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남서쪽에 위치한 뷔케베르크(Bueckeberg)의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독일민족이란 반드시 혈통 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관을 의미하며, 개개인은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반면에 민족(Volk)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Ferdinand, 1991).

그러나 제3제국 당시 수많은 인종학 관련 출판물이 발간되어 공적으로 학교나 관공서에서 사용했지만 사실 금발, 푸른 눈, 큰 체격을 가진 북 게르만인이라는 애매한 이상형으로는 그들이 지향하는 ‘인종(Rasse)’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는 없었다. 실제적으로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은 인종공동체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고, 특히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아리아인에 대립되는 인종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민족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한 특별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계략은 이미 나치스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Holocaust) 전인 1935년 9월 15일 제7차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 전당대회에서 반유대적이고 인종 이데올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뉘른베르크법’(Nuerberger Gesetz)에 포함되었다. 이에 의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이나 교제의 엄격한 금지와 함께 민족공동체로부터 유대인들의 배제가 법적으로 결정되었다(Bernd, 1993).

히틀러와 민족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공동체 사상은 세계관의 공동체로서 정치적 운동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지도자’(Fuehrer)에 대한 숭배 등 사이버 종교처럼 개인의 사생활 속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히틀러에 대한 무제한적 신봉을 하는 자만이 민족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인정된 반면에, 이에 주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사상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민족공동체 사상은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국내·외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안전을 비롯하여 정치적인 정의(正義) 및 독일사회의 민족적인 개혁의 이상형으로 선전되었다. 물론 독일 민족공동체에 속하지 않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자는 민족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결국 멸절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Franz, 1997).

2.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

‘유대인은 우리의 불행이다’. 이 말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하인리히 폰 트라이취케(Heinrich von Treitschke, 1834~1896)에게서 유래하였다. 그는 1879년~1880년 사이에 이를 입증하려고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결국 후일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선전물인 광고나 포스터에 인용되기도 하였다(Ahlheim, 2011).

사실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 개념은 19세기의 산물인데, 독일 언론인인 빌헬름 마르(Wilhelm Marr, 1819~1904)가 새롭게 해석하였다. 즉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이해하는데, 원래 ‘Anti’는 ‘반대’라는 뜻이며, ‘Semites’는 창세기의 인물인 노아(Noah)의 세 아들 중 장남인 셈(Sem)에서 유래하였다. 셈족들은 사실 동일한 어족(語族)에 속하였고, 주로 북동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출신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랫동안 유대인이나 유대종교인들과 동일시되었으며, 또한 이는 ‘인종’ 개념과 관련성을 두어 주로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었다(Friedlaender, 2007).

유대인들은 긴 역사에서 배제, 학대 및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종교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인종으로 간주되어 19세기에는 새롭게 반유대주의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잘못된 사고와 비이성적인 증오심을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으로 오용하였다. 히틀러의 세계관은 일생동안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유대인과 모든 유대적인 것에 대한 적대심으로 각인되었다. 그는 1907년~1913년 사이에 화려한 도시였던 빈(Wien)에서 극도의 빈곤 중에 살았고, 실업학교 중단이나 미술대학

진학의 실패 등 개인적인 실패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세계상이 형성되었는데, 즉 자신의 고난 속에서 다만 더 강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상이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또 히틀러의 사상 형성과정에 영향을 준 인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빈(Wien) 시장인 칼 뤼거(Karl Lueger, 1844~1910)로부터 군중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배웠고, 아울러 빌헬름 마러(Wilhelm Marr)의 여러 저술들이 히틀러에게 큰 작용을 하였다. 이때 히틀러는 게르만 인종이 장차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었다(Barkai, 1988).

반유대주의 사상은 민족사회주의자들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에 겪는 독일의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인 불행 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추종세력을 확보하는 사상적 도구였다. 1920년 2월 24일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의 25개조로 구성된 강령에는 반유대주의의 기본원칙이 규정되었는데, 몇 가지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Essner, 2002).

- 국민은 다만 민족공동체의 일원만 해당된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란 독일 혈통을 말하며 종교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유대인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 국민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만 손님으로만 독일에 거주할 수 있으며, 외국인법이 적용된다.
- 국가의 법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단지 국민에게만 권한이 허용된다.
- 모든 비독일인들의 계속적인 이민은 저지한다. 1914년 8월 2일 이후로 독일로 이민 온 모든 비독일인들은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1933년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이 권력을 이양 받음과 동시에 반유대주의 이념은 국가 정책의 원칙이 되었고, 또한 ‘직업공무원 재건법’(Gesetz zur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이라는 법령으로 유대인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1935년의 뉘른베르크법을 통하여 독일 내 유대인들은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직업금지 등 수많은 차별을 받았다. 또한 1933년 4월 1일 토요일부터 독일지역의 유대인 가게, 백화점, 은행, 의료기관, 변호사 및 공증사무소 등에 대한 불매와 배척 운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펼쳐졌다. 또 1938년 11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서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에 주도된 소위 ‘11월 학살의 밤’(Novemberpogrome)에 독일 내 유대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대량학살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가정집, 공동묘지, 기도실, 회당 등이 파괴되었고, 약 30,000여명의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었다(Koop, 2014).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이념 위에서 히틀러는 계속하여 독일 국민들로 하

여금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인 사고를 적극 고취시켰고, 결국 수백 만 명에 이르는 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생활공간이념(Lebensraumideologie)

독일 동물학자이자 지정학자(地政學, geopolitics)인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은 1897년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과 1901년의 ‘생활공간’(Lebensraum) 논문에서 처음으로 ‘생활공간’ 개념을 언급하였다. 비록 그가 인류 역사는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해했지만, 사실 자신의 생활공간 이론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당시 독일 전역의 보도매체에서 독일의 광범위한 국제정치나 외교정책과 관련시켰고, 정치적 입장의 ‘생활공간’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후반에 민족들 간의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으로 이해하면서 발전하였다(Jahn et al, 2017).

히틀러는 1924년 자신의 고백록인 ‘나의 투쟁’(Mein Kampf) 제1권에서 국외정치와 관련하여 장차 독일제국이 동부유럽 등 해외에 대한 팽창정책을 위하여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칼 에른스트 하우스호프(Karl Ernst Haushofer, 1869~1946)의 이론을 교묘하게 결부시켰다. 히틀러는 게르만이나 아리아종의 우월성과는 반대로 슬라브 민족에 대해서는 적대심을 고취시켜 인종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독일의 새로운 생활공간의 확보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 그는 1919년 6월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제1차 세계 대전의 평화협정인 베르사이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서 양도된 독일지역의 반환요구와 우랄, 흑해, 우크라이나 및 코카서스 등을 포함한 동부유럽 전역에 대한 정복야욕까지 품었다. 1926년에는 독일의 문필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한스 에밀 빌헬름 그림(Hans Emil Wilhelm Grimm, 1875~1959)의 ‘공간 없는 민족’(Volk ohne Raum)이라는 소설이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영토팽창 정책의 표어로 채택되어 독일을 위한 공간과 땅의 확보는 이른바 ‘의로운 투쟁’(gerechter Kampf)이라는 정치적 선동의 슬로건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Burleigh, 2000).

민족우생화적인 입장에서 생활공간사상은 히틀러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개념이고, 히틀러는 1933년 2월 3일 제국 수상의 권력 장악 후에 독일 국방군(Reichswehr) 장교들 앞에서 처음으로 동부유럽에서의 생활공간 확대와 이에 대한 독일화(獨逸化)

정책을 공표하였다. 이에 나치스 정권은 독일인에 대하여 지배적 민족이나 군주적 민족(Herrenvolk)이라는 민족적-사회적 다윈주의 이념을 기초로 독일인을 위한 거주 지역 확장과 소위 열등인간(Untermenschen)으로 격하시킨 슬라브인들에 대한 착취와 대량 학살을 통하여 독일의 자주적 경제 재건을 꾀하였던 것이었다(Frei, 2013).

1939년 8월 23일 히틀러-스탈린(Josef Wissarionowitsch Stalin, 1878~1953) 상호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히틀러의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Unternehmen Barbarossa)으로 선전포고 없는 소련 공격으로 무효화되었다. 우선 생활공간 사상은 폴란드에 대한 공격과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멸절전쟁(Vernichtungskrieg)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즉 동부유럽에서 우랄산맥에 이르기까지 독일인들을 위한 거주 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쟁 목적에 따라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 1900~1945)는 우랄 산맥 서쪽의 소련지역에 군주적 인종으로 불리는 독일인을 대량으로 정착시키는 반면에 소련인의 대부분을 시베리아로 추방하고 일부는 남겨서 노예노동 착취 등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Hass, 1990).

히틀러는 최후 순간까지 이른바 미래의 ‘대(大)독일제국’(Grossgermanisches Reich) 건설을 위하여 동유럽으로의 영토 확장이라는 생활공간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서부와 중부 유럽의 대부분을 침략한 뒤 자신의 점령정책 계획에 따라서 소비에트 연방의 유럽 지역에 대한 정복을 꾀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는 이미 베를린 근교에서 막바지 치열한 전투로 생의 마지막 시기였던 1945년 4월 29일까지도 자신의 헛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국방군의 변함없는 임무는 동부유럽에서 독일민족을 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하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Voigt, 2008).

4. 인종주의(Rassismus) 및 사회적 다윈주의(Sozialdarwinismus)

히틀러와 추종자들은 인종을 아리아인과 유대인 등 두 가지로만 구분하였다. 이에 아리아인을 인간의 이상형임과 동시에 다른 인종들을 지배하기 위한 존재로 이해한 반면에,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롭게 하는 위험한 민족으로 간주하였다. 나치스 정권은 자신들의 인종학을 인종론(Rassentheorie)과 민족우생학(Rassenhygiene)등 두 가지 사이비 학문으로부터 인용하였다. 이 두 가지 입장은 19세기 말에 발전하였는데, 나치정권은 인종론에서 인류는 다양한 인종으로 분류된다는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그

들은 인종의 개념을 민족의 개념과 동일시하였고, 독일민족을 아리아종의 대표로 선전하였다.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인종론에서 아리아족을 완전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모든 다른 인종들에 비하여 원(原)인종으로 월등하며 모든 타 인종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lumelle-Urbe, 2004).

또 히틀러는 민족우생학을 기초로 아리아족은 금발, 푸른 눈, 유능하고 신실한 성품 등의 순수성과 우수한 특질을 유지해야하며, 다만 이들을 통해서만 인류는 고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아리아민족의 주적(主敵)으로 보았고,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존재로 보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정치적 선동을 일삼았다. 즉 유대인들은 위협적인 존재이며, 검은머리, 검은 눈, 게으르고 교활함 등 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간상으로 나치스 정권의 수많은 선전물을 통하여 왜곡시켰다. 특히 독일국민들에게 소위 아리아 인종유지를 위한 12계명이 담긴 전단지 뿌리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라!'와 같은 계명을 통하여 민족사회주의적인 인종론은 가히 종교적인 위치에까지 이를 정도였다(Miles, 1992).

또한 학교 수업에서도 반유대적인 사상이 대대적으로 교육되었는데, 모든 학교에 소위 '인종지도책'(Rasseatlas)이 있었고, 여기에는 아리아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30여개의 큰 그림들이 제시되었다. 학교졸업 시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유대인들은 독일민족에게 위협적인 존재라 굳게 믿었다. 독재 정권은 소위 위험한 유대인으로부터 자기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2천여 개 이상의 반유대인법을 제정하였으며, 1935년 9월 15일에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령'(Nuernberger Gesetz)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특히 이 법에는 아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결혼이 금지되었고, 결혼대상자들은 자신의 아리아계 출신을 증명하는 확인증(Ahnenpass)을 소지해야만 했다(Benzenhoefer, 2006).

그 이후에 제3제국은 극단적인 인종론으로 많은 유대인 가게를 파괴하고, 대대적인 구금을 하거나 새롭게 독일로 병합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약 17,000여명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였다. 또한 1938년 11월 9일부터 10일 밤의 '유대인 박해의 밤'(Reichspogromnacht)에 유대인 회당이 소실되고, 약 26,000여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 그 중에 일부는 독일을 떠나기로 동의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여 1939년까지 석방됐지만, 약 500여명 이상은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거나, 자살이나 의료적인 치료 거부행위 등으로 희생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는 유대인의 권

리가 대폭 축소되어 실제적인 직업 활동과 공립학교 교육이 금지되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공원의자가 따로 설치되었으며, 음식점 출입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이러한 인종론의 말미에는 소위 ‘유대인 문제의 최종해결’(Endlösung der Judenfrage)이 제시되어 6백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다(Rudnick, 1990).

나치스 독재정권의 인종론에 대한 망상은 유대인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 및 만성 환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히틀러는 그들을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을 감소시키며, 인류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는데 유해한 ‘살 가치가 없는 목숨’(Lebensunwertes Leben)으로 여겨 대량학살을 자행하였다. 또한 히틀러는 이른바 우생학(Erbpflege)과 인종관리학 관련 정책에 의해 유전학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적 불임수술을 하였다. 이는 ‘차세대유전성질병예방법’(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을 바탕으로 1933년 7월 14일 발효되어 질병이나 장애 등의 악영향으로부터 아리아 민족의 순수혈통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나치스 독재정권의 인종론이나 사회적 다윈주의 사상은 결국 소위 ‘Aktion T-4’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수 십 만 명의 환자와 장애인들을 멸절시설(Vernichtungslager)로 이송한 후에 독가스, 독주사나 기아사 등에 의하여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Klee, 1983; Hamm, 2005).

이처럼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적 인간관은 민족공동체, 반유대주의, 생활공간, 인종주의 및 사회적 다윈주의 등의 주요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매우 공격적이고 극단적이며 분리주의적인 특성을 보였던 것이었다. 독재정권은 혈통적으로는 게르만인이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며, 사상적으로는 민족사회주의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된 충복(忠僕)에게만 기본적인 생명권이 부여되었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광적인 세계관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대대적인 정복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에 약 60여 개국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총 6천 5백만 여명이상이 비참하게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소련의 경우 약 2천 7백만 명이 숨졌는데, 독일군에 의하여 전쟁포로가 된 소련의 붉은 군대 약 3백만 명이 아사(餓死), 질병, 학대, 총살이나 특별 수용소 구금 등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 밖에도 약 7백만~1천백만 여명이 비인간적인 환경 가운데서 독일이나 점령지에서 강제 노역자로 투입되었다(Schreiber, 2013; Gruchmann, 1985).

또한 히틀러는 1941년~1945년에 걸쳐 아우슈비츠(Auschwitz) 등의 강제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Holocaust)를 통하여 약 560만 명~630만 여명의 유럽 내 유대인들을 국가

적 범죄를 통하여 학살하였다(Pohl, 2000; Benz, 2008). 게다가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등의 이념적 기초로 한 보건정책에서 1934년부터 약 40만 명의 각종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적 불임시술을 시행하였다. 특히 비생산적인 존재로 보았던 지체, 지적 및 정신 장애인들은 민족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보아 ‘살 가치가 없는 목숨’(Lebensunwertes Leben)으로 분류된 후에 ‘Aktion T-4’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의 특별 살해 시설에서 약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약물, 독가스, 영양실조 등을 통하여 살해되었던 것이었다(Aly, 1989; Hamm, 2005; Benzenhoefer, 2000).

III. 기독교 윤리적 인간존엄성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의 인간관 비판

인간의 존엄성 관련 법조항은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기본법 제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헤셀베르거(Hesselberger, 1999)는 인간 존엄성의 주요 근거를 주로 철학적 입장과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각각 두고 있다.

철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존엄성 개념은 17세기~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자연법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Gerhardt, 2004).

인간이 최고로 존엄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장 탁월하고, 이성(理性)의 빛을 통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예술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푸펜도르프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그가 영혼과 이성 그리고 결정의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던 것이었다.

또 계몽주의자이자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1785년 자신의 저서인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에서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의 생존권에 대한 인정, 만인의 원칙적인 평등성에 대한 인정 등 세 가지 원칙을 말하였다. 그는 ‘인간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며, 따라서 인간은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는 노예소유자가 노예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이 훼손되며, 아울러 억압 및 사기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특히 인간이 가진 도덕적 자율성에 그 바탕을 두었던 것이었다(Quante, 2010).

그러나 기독교 윤리적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 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적인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질적 차원과 입장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즉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섭리주,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의 창조과정에서부터 인간은 다른 동·식물들과는 엄연히 구별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에 분명하고도 심오한 의미를 가진 인간 존엄성 사상의 근본적인 주요 근거를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역사과정에서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독특하게 창조됨으로서 어떤 피조물들과도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 26절~28절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중략)...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이하생략).

여기에서 인간은 먼저 '자연적인 것' 이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존재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내면적인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처럼 인격성, 자기 초월성, 지성적, 이성(理性)적, 도덕적, 사회적, 창조적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피조물과는 창조의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질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기자는 시 8: 5~8에서 하나님이 사실 보잘 것 없는 인간을 광대한 사물의 구도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신 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 존재의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사상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의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인간의 존엄성은 궁극적인 존엄자이신 하나님의 반영(反影)으로서 부여된 존엄성이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 금물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일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존재인데, 즉 다른 피조물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배권(창 1: 28-30; 시 8: 6-8)으로 말미암아 월등히 상위에 있지만, 창조주에 대해서는 비자율적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바 하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경재 외, 1992; Sire, 1988; 1990).

둘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다른 피조물, 즉 땅과 자연 및 동물 등에 대한 경작권과 관리권을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간에게 이른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중략)...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중략)...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24편 1절에도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땅은 인생에게 주셨으며’, 시편 8편 6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이하생략)...’이라고 관리권을 위임하신 것이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후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식물뿐만 아니라 광물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작이나 관리를 허락하시어 이른바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시키심으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이다(이기락, 1992; Wright, 1983).

셋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서로 상이한 측면에서 평가되곤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구별된 존엄한 가치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 종함으로서 타락한 존재이며, 이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대상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철저히 죄악으로 물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이었다(김형민, 2017; 양승훈, 1999; Stott, 1984).

이러한 기독교 윤리적인 인간존엄성 사상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여 히틀러 독재정권이 지향했던 민족공동체 사상을 비롯하여 반유대주의, 생활공간이념, 인종주의 및 사회적 다원주의 등의 정치이념과 그에 따른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으로 자행한 사회정책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제3제국 시대의 주요 인간관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따라서 형성된 민족공동체 사상, 침략을 통한 식민지 확보를 위한 생활공간이념, 반유대주의 및 인종주의적인 정치 이념 등의 정치적 선동을 통하여 소위 아리아족 또는 게르만 족 외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적대시하는 천박한 선민사상을 앞세워 멸절의 대상으로 분류한 나머지 끔찍한 침략전쟁과 집단학살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관은 근본적으로 민족(혈통)이나 인종적인 이유로 결코 배타적, 거부적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화평한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과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의 인간관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독특하게 창조된 인간의 본래 속성들 가운데 한 가지인 사회적 상호관계를 들 수 있다. 이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창조로부터 인류 구원에 이르기까지 삼위의 협력과 상호 존중 및 인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 하나님으로서 사회(공동체)적 존재이시라는 점이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적 흐름은 개인의 선(善)과 공동의 선(善),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 개인과 집단사이의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은 어떤 강력한 개인도 자신의 주장을 단체에 강요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단체도 개인이나 소수의 권리와 존엄성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Stott, 1984).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며(롬 3: 10-12; 요일 1: 8; 롬 3: 23),

아울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요 3: 16-17; 딤후 2: 4)는 것이다. 즉, 신,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사역은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정해진 시간동안 다 열려있고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창 12: 3; 사 11: 10; 요 10: 16; 롬 15: 7-13).

아울러 아담 이후로 최악으로 타락한 인류는 히틀러의 식민정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에 이익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많은 분쟁, 분열, 갈등 및 살인 등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화평과 섬김과 긍휼과 희생과 헌신의 왕(고후 5: 18-19; 롬 5: 1, 8; 빌 2: 1-3; 요일 2: 2; 히 9: 26-28)으로 성육신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었다. 사도 바울도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적인 상황에 있어서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통합, 다양한 종족문화 즉, 역사의 하나님, 예수그리스도의 궁극성, 즉 제림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 즉, 구속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분리와 갈등보다는 통합과 조화의 공동체를 강조하였다(신 32: 8; 계 21: 24, 26; 갈 3: 28 등). 이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와 같이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구원 공동체의 꿈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Stott, 1984).

둘째,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각각의 인간은 모두가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가치롭고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특별한 의미는 결코 철학자들이 조건적, 상대적으로 주장하는바 인간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자율적 존재에 기인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악으로 몰든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김형민, 2017).

하지만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이른바 우생학적 인종주의 관점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며, 동시에 경제학적인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수 십 만 명의 정신질환자, 지적 및 지체장애인들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된 후에 참혹하게

대량 희생되는 등 국가적으로 조직적인 범죄가 자행되었다.

한편 오세철(1987)은 성경에 시각, 청각 및 지체장애 등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가 총 160회(구약 89회, 신약 71회)기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사실 성경에서 언급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불평등의 조건(창 29: 19; 레 21: 17-23), 죄의 결과(욥 29: 15; 왕하 6: 18, 왕상 13: 4, 사 16: 1; 잠 26: 7), 조롱이나 무능력자(신 16: 19, 삼하 5: 6-8) 등의 부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출 4:11; 요 9: 1-3), 선교나 전도의 대상(눅 4: 17;-19; 사 61: 1-2),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레 19: 14; 신 27: 18) 혹은 천국의 동등한 구성원(미 4: 6-7) 등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있다는 점이다(이계운, 2002). 그러나 황홍렬(2008), 박혜진, 조영길(2009) 및 이은미(2013)에 따르면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인 사회적 태도가 대체적으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왜곡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성경에서 장애나 혹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징적이거나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결코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는 옳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허용(요 3: 16; 딤후 3: 4; 롬 5: 8;)되어 있으며,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질환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전인적인 관심과 긍휼과 치유하심이 성경 곳곳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성경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도우며 존중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시 133: 1-3; 롬 14: 1, 10; 15: 1-3)이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다(이상원, 2016).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독특하고 귀하며 가치로운 고유한 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의미이다. 즉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 6)’라고 선포하는 바처럼 인간 생명을 해하는 일을 큰 죄악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양승훈, 1999).

셋째, 성경적 입장에서 인간은 ‘죽임’이든 ‘죽음’이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전혀 질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히틀러와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적(政敵)을 비롯하여 인종주의, 사회적 다원주의 및 생활공간 사상 등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명을 잔인하게 살상하였다. 유물론적이나 무신론적 실존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죽음을 아예 소멸(消滅)로 보는 반면에 불

교나 힌두교에서는 죽음을 끝없는 환생을 통한 윤회의 한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극단적인 수단으로 ‘죽음’이나 ‘죽임’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근본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여 선언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특히 인간 죽음의 유래는 본래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라고 본다. 죄란 인간사이의 문제기보다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 12)’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악에 그 원인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며,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9: 27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며 출생 후에 육체적인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는 각 사람마다 선악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재가 결코 한낱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나지도 않으며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임을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와 같은 경계와 경고의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타인이든 자신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벌(출 21: 12; 민 35: 16, 31 등)이 반드시 따르며, 성경은 철저히 금지(출 20: 13; 창 37: 21; 삼상 24: 10-11; 고전 6: 19; 딤후 4: 6-8, 18) 하고 있음도 분명히 알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독일 제3제국 시대의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이 추구했던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들과 당시 사회정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을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미와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관련하여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이 지향했던 인간관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적인 사상과 밀접한 관계성과 공통성이 있다할 것이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앗아가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보편적인 윤리 혹은 도덕적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관점을 주축으로 하는 성경적인 기본적 인간존엄성 사상은 더 더욱 수용되지 않는다. 단지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낳으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옳지 못하다는 결과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수많은 만행과 마찬가지로 자살이나 안락사 행위 등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런 행위의 결과가 욕구의 최대 만족과 최소의 좌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인 태도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공리주의적 윤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호주 출신의 철학자이며 윤리학자인 피터싱어(Peter Singer, 1946~현재)는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이른바 이성, 자의식 및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인격체’(Person)로서의 인간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는 태어나 장애인들을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종(種)으로서의 인간에 각각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은 다만 인격체로서의 갖추어야 할 속성을 지닌 인간존재에게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등을 지지한 미국의 상황윤리학자였던 조셉 프란시스 플레처(Joseph Francis Fletcher, 1905~1991)의 이른바 ‘인간성의 징표’(indicator of humanity)를 가진 사람을 ‘인격체’(Person)로서의 인간으로 명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의식을 비롯하여, 자기통제, 미래감, 타인과 관계를 맺을 능력, 의사소통, 타인에 관한 관심, 호기심 등이 포함되었다. 마치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이 게르만족 이외에는 유대인이나 슬라브족 등을 ‘하등인간’으로 간주하고, 정신질환자나 지적, 지체장애인 등에 대하여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하여 처절한 대량 학살을 자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언급된 두 윤리학자들도 인간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와 가치에 조건적, 상대

적 존엄성을 부여하였던 것이었다(구인회, 2002; 문성학, 2001).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이른바 ‘존엄사법’에 의거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계획서’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최근 호주의 구달(Goodall) 박사의 안락사(조력자살)이나 이미 오랫동안 특히 우리나라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suicide) 등의 사회적 현상을 감안할 때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고귀한 기본적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명윤리 문제가 점차 제한적인 전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감에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오늘날 점차 인간의 존재가치 및 의미 등 보편적인 존엄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생산성, 경제성 및 합리성에 바탕을 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공리주의적 요인에 집중됨과 동시에 특히 현세주의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택한다는 점이다.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제3제국 기간(1933~1945)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 걸쳐 자신의 정치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정적(政敵)을 비롯하여 유대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테러와 대량학살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죽임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비롯하여 그 당시 수많은 주요 전범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음으로서 모든 문제에서 헤어나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 해당하는 낙태나 안락사, 자살, 사형 등의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나 논란도 결국은 ‘죽음’을 결정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적이거나 미래의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은 공통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초적 관점은 전혀 그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음이며(롬 6: 23; 약 1: 15), 죽음은 결코 완전 소멸이 아니라 그 이후의 하나님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은 결코 절망도, 공포의 대상도 아니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었으며, 이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요 3:16; 히 2:15; 고전 15: 55)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독립된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동시에 무가치한 것은 또한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이다.

게다가 히틀러와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안락사나 자살 등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행위에서 타인에 대한 살인이든 자살행위든 간에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비롯하여 모든 개인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이 중세 이후부터 서서히 자기 자신 즉 이른바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 Right of Self-Determination)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통하여 오히려 점점 더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생의 제일가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생의 제일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하면 인생들의 삶의 전 과정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출발과 지향점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보이는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의 시대정신(Zeitgeist)은 아마도 성경의 사사기 21장 25절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철저히 왜곡된 인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원래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절박하고 필수적인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고, 친히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청지기의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피조물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류 입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속죄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천하에 어떤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구인회 (2002). **생명윤리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Gu, I. H. (2002). *Philosophy of Bioethics*. Seoul: Cheolhaggwa hyeonsilsa.]
- 김경재 · 오영석 · 김정준 · 박종화 · 고재식 · 김창락 · 정용섭 · 홍정선 · 김성재 · 박근원 공저 (1992). **기독교와 문화**. 개정판.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 출판부.
- [Kim, G. J., Oh, Y. S., Kim, J. J., Go, J. S., Kim, C. R., Jeong, W. S., Hong, J. S., Kim, S. J., Park, G. W. (1992). *Christianity and Culture*. Revision. Gyeonggi-do Osan: Hanshin University Press.]
- 김기홍 (2014). **장애아교육학**. 개정판. 서울: 집문당.
- [Kim, K. H. (2014). *Disabilities Children Education*. Revision. Seoul: Jipmondang.]
- 김현수 역 (199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Sire, James W. 서울: 한국기독교학 생회출판부(IVP).
- [Kim, H. S. (1995). *Christian Worldview and Modern thought*. Seoul: IVP. Trans. Sire, James W.]
- 김형민 (2017). 인간존엄성의 신학적 해석과 논증. **신학과 사회**, 31(1), 41-68.
- [Kim, H. M. (2017). Theological Interpretation and Justification of Human Dignity. *Theology and Society*, 31(1), 41-68.]
- 문성학 (2001). **현대인의 삶과 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 [Moon, S. H. (2001). *Modern life and ethics*. Seoul: Hyungseol Publishing.]
- 박영호 역 (1985).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Stott, John R. W.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 [Park, Y. H.(1985).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and Christian Answers*. Seoul: CLC. Trans. Stott, John R. W.]
- 박혜전 · 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14(3), 135-175.
- [Park, H. J., Cho, Y. G. (2009). Rehabilitation and Christian Call for the Disabled. *faith & scholarship*, 14(3), 135-175.]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CUP.
- [Yang, S. H. (1999). *Christian worldview*. Seoul: Book Publishing CUP.]
- 오세철 (1987). 성서(聖書)에 나타난 장애자관(障礙者觀).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9, 1-23.
- [Oh, S. C. (1987). Perspectives of the disabled person in the Bibl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9, 1-23.]
- 이계윤 (2002).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밀알선교단 출판부.

- [Lee, G. Y. (2002). *Theory and Practice of Rehabilitation Welfare Practice*. Seoul: Korea MILAL Missionary Press.]
- 이기락 (199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학적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7, 34-53.
- [Lee, G. R. (1992). Biblical consideration of human dignity. *Catholic Theology and History*, 7, 34-53.]
- 이상원 (2016). **십자가에서 아가페로**.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솔로몬.
- [Lee, S. W. (2016). *From the cross to Agape*. 1 Corinthians. Seoul: Solomon.]
- 이은미(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Christian Approach to the Disabled. *Theology and Mission*, 42, 215-246.]
- 정옥배 역 (1989).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Wright, C. J. H.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IVP).
- [Cheng, O. B. (1989). *The Old Testament Ethics for Modernity*. Seoul: IVP. Trans. Wright, C. J. H.]
- 정옥배 역 (1994). **지성의 제자도**. Sire, James W.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 [Cheng, O. B. (1994). *Disciples of the mind*. Seoul: IVP. Trans. Sire, James W.]
- 황홍렬 (2008). 장애인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한 시도. **부산장신논총**, 8, 부산장신대학교출판부.
- [Hwang. H. Y. (2008). An attempt to establish the theology of the disabled pers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8,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 Ahlheim, H.(2011). *Deutsche, kauft nicht bei Juden! Antisemitismus und politischer Boykott in Deutschland 1924 bis 1935*. Goettingen: Wallstein Verlag.
- [Ahlheim, H.(2011). *Germans, do not buy from Jews! Anti-Semitism and political boycott in Germany 1924-1935*. Goettingen: Wallstein Press.]
- Aly, G.(1989). *Aktion T4: 1939-1945. Die "Euthanasie"-Zentrale in der Tiergarten 4*. Berlin: Edition Hentrich.
- [Aly, G.(1989). *Action T4: 1939-1945. The "Euthanasia" Center in the Tiergarten 4*. Berlin: Edition Hentrich.]
- Barkai, A.(1988). *Vom Boykott zur "Entjudung". Der wirtschaftliche Existenzkampf der Juden im Dritten Reich 1933-1943*. Frankfurt a. M.: Fischer-Taschenbuch-Verlag.

- [Barkai, A.(1988). *From boycott to "dejudishment". The Economic Existential Struggle of the Jews in the Third Reich 1933-1943*. Frankfurt a. M.: Fischer-Taschenbuch-Press.]
- Benz, W.(2008). *Der Holocaust*. 7. Aufl., Muenchen: Beck.
- [Benz, W.(2008). *The Holocaust*. 7th edition, Muenchen: Beck.]
- Benzenhoefer, U.(2000). "*Kinderfachabteilung*" und "*NS-Kindereuthanasie*". Studien zur Geschichte der Medizin im Nationalsozialismus. Bd. 1. Wetzlar: GW AB.
- [Benzenhoefer, U.(2000). "*Children's Specialist Department*" and "*NS Children's Euthanasia*". Studies on the history of medicine under National Socialism. Bd. 1. Wetzlar: GW AB.]
- Benzenhoefer, U.(2006). *Zur Genese des Gesetzes zur Verhuetung erbkranken Nachwuchses*. Muenster: Klemm & Oelschlaeger.
- [Benzenhoefer, U.(2006). *On the Genesis of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Diseased Offspring*. Muenster: Klemm & Oelschlaeger.]
- Bernd, S.(1993). *Volksgemeinschaft im Dritten Reich*. Die Konsensbereitschaft der Deutschen aus der Sicht sozialistischer Exilberichte. Duesseldorf: Droste.
- [Bernd, S.(1993). *Volksgemeinschaft in the Third Reich*. Consensus readiness of the Germ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ist exile reports. Duesseldorf: Droste.]
- Burleigh, M.(2000). *Die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Eine Gesamtdarstellung. 2. Aufl. Frankfurt a. M.: Fischer.
- [Burleigh, M.(2000). *The time of National Socialism*. An overall presentation. 2nd ed., Frankfurt a. M.: Fischer.]
- Essner, C.(2002). *Die Nuernberger Gesetze oder Die Verwaltung des Rassen- wahns 1933-1945*. Parderborn: Schoening.
- [Essner, C.(2002). *The Nuernberger Laws or The Administration of Racism 1933-1945*. Parderborn: Schoening.]
- Fengler, J./Jansen, G.(1987). *Handbuch der Heilpaedagogischen Psychologie*. Stuttgart/Berlin/Koeln/Mainz: Verlag W. Kohlhammer.
- [Fengler, J./Jansen, G.(1987). *Handbook of Therapeutic Psychology*. Stuttgart/ Berlin/ Koeln/Mainz: Press W. Kohlhammer.]
- Ferdinand, T.(1991).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Grundbegriffe der reinen Soziologie. 3. Auf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Ferdinand, T.(1991). *Community and society*. Basic concepts of pure sociology. 3rd. e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Franz, J.(1997). *Die braune Gesellschaft*. Ein Volk wird formatiert. Stuttgart: Verlag Der Evang. Gesells.
- [Franz, J.(1997). *The brown society*. A people is being formatted. Stuttgart: Verlag Der Evang. Gesells.]
- Frei, N.(2013). *Der Fuehrerstaat*. Nationalsozialistische Herrschaft 1933–1945. Mue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Frei, N.(2013). *The Fuehrer State*. National Socialist rule 1933–1945. Muenchen: Deutscher Taschenbuch Press.]
- Friedlander, H.(2001). *Der Weg zum NS-Genozid*. Von der Euthanasie zur Endloesung. Berlin: Heyne.
- [Friedlander, H.(2001). *The path to Nazi genocide*. From euthanasia to the final solution. Berlin: Heyne.]
- Friedlaender, S.(2007). *Das Dritte Reich und die Juden*. Die Jahre der Verfolgung 1933–1939. Die Jahre der Vernichtung 1939–1945. Einbaendige Sonderausgabe. Muenchen: C. H. Beck.
- [Friedlaender, S.(2007). *The Third Reich and the Jews*. The years of the persecution 1933–1939. *The years of annihilation 1939–1945*. Inserted special edition: Muenchen.]
- Gerhardt, V.(2004). *Die angeborne Wuerde des Menschen*. Aufsaezte zur Biopolitik. Berlin: ParErga.
- [Gerhardt, V.(2004). *The innate dignity of man*. Essays on biopolitics. Berlin: ParErga.]
- Goffman, E.(1990). “*Stigma-ueber Techniken der Bewaeltigung beschaedigter Identitaet*”. Frankfurt. a. M.: Suhrkamp.
- [Goffman, E.(1990). “*Stigma-about techniques of managing bewitched identity*”. Frankfurt. a. M.: Suhrkamp.]
- Gruchmann, L.(1985). *Der Zweite Weltkrieg*. Muenchen: dtv.
- [Gruchmann, L.(1985). *The second World War*. Muenchen: dtv.]
- Hamm, M.(2005). “*Lebensunwert*”: *zerstoerte Leben*. Zwangssterilisation und “Euthanasie”. Frankfurt a. M.: Verlag für akademische Schriften.
- [Hamm, M.(2005). “*Unhuman life*”: *destroyed lives*. Forced sterilization and “euthanasia”. Frankfurt a. M.: Publishing house for academic writings.]
- Hass, G.(1990). 23. August 1939. *Der Hitler-Stalin Pakt*. Berlin: Dietz Verlag.

- [Hass, G.(1990). August 23, 1939. *The Hitler–Stalin Pact*. Berlin: Dietz Press.]
- Hesselberger, D.(1999). *Das Grundgesetz*. Kommentar fuer die politische Bildung. 11. Aufl. Neuwied/Kriftel: Luchterhand.
- [Hesselberger, D.(1999). *Constitution*. Comment for the political education. 11th edition. Neuwied/Kriftel: Luchterhand.]
- Hufton, O.(1999). *Menschenrechte in der Geschichte*. 2. Aufl. Frankfurt a. M.: Fischer.
- [Hufton, O.(1999). *Human rights in history*. 2nd ed. Frankfurt a. M.: Fischer.]
- Jahn, P./Weiler, F./Ziemer, D.(2017). *Der deutsche Krieg um “Lebensraum im Osten” 1939–1945*. Berlin: Metropol.
- [Jahn, P./Weiler, F./Ziemer, D.(2017). *The German War for “Habitat in the East” 1939–1945*. Berlin: Metropol.]
- Jeffrey, V.(2000). *Der “Geist von 1914” und die Erfindung der Volksgemeinschaft*. Hamburg: Hamburger Edition.
- [Jeffrey, V.(2000). *The “Spirit of 1914” and the invention of the Volksgemeinschaft*. Hamburg: Hamburger Edition.]
- Klee, E.(1983). *“Euthanasie” im NS–Staat*. Die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Frankfurt a. M.: S. Fischer.
- [Klee, E.(1983). *“Euthanasia” in the Nazi state*. The “destruction of life unworthy of life”. Frankfurt a. M.: S. Fischer.]
- Klee, E.(1985). *Dokumente zur “Euthanasie”*. im NS–Staat.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Klee, E.(1985). *Documents on “euthanasia”*. in the Nazi state. Frankfurt a. M.: Fischer Taschenbuch.]
- Koop, V.(2014). *Wer Jude ist, bestimme ich: “Ehrenarier” im National sozialismus*. Koeln/Weimar/Wien: Boehlau.
- [Koop, V.(2014). *Whoever is a Jew, I determine: “Ehrenarier” under National Socialism*. Koeln/Weimar/Wien: Boehlau.]
- Mattner, D.(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 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 [Mattner, D.(2000). *Disabled people in society: between exclusion and integration*. Stuttgart: Press W. Kohlhammer.]
- Miles, R.(1992). *Rassismus*.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und Theorie eines

- Begriffs. Hamburg: Argument Verlag.
- [Miles, R.(1992). *Racism*.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theory of a concept. Hamburg: Argument Press.]
- Plumelle-Urbe, R. A.(2004). *Weisse Barbarei*. Vom Kolonialrassismus zur Rassenpolitik der Nazis. Zürich: Rotpunktverlag.
- [Plumelle-Urbe, R. A.(2004). *White barbarism*. From colonial racism to racial politics of the Nazis. Zürich: Rotpunkt Press.]
- Pohl, D.(2000). *Holocaust*. Die Ursachen-das Geschehen-die Folgen. 2. Aufl. Freiburg: Herder.
- [Pohl, D.(2000). *Holocaust*. The causes-the events-the consequences. 2nd ed. Freiburg: Herder.]
- Quante, M.(2010). *Menschenwuerde und personale Autonomie*. Demokratische Werte im Kontext der Lebenswissenschafte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Quante, M.(2010). *Human dignity and personal autonomy*. Democratic values in the context of the life sciences. Hamburg: Felix Meiner Press.]
- Rudnick, M.(1990). *Aussondern-Sterilisieren-Liquidieren*. Die Verfolgung Behinderter im Nationalsozialismus. Berlin: Edition Marhold.
- [Rudnick, M.(1990). *Singled-sterilizing-liquidating*. The Persecution of Disabled People in National Socialism. Berlin: Edition Marhold.]
- Schreiber, G.(2013). *Der Zweite Weltkrieg*. 5. Aufl. Muenchen: C.H. Beck.
- [Schreiber, G.(2013). *The second World War*. 5th edition. Muenchen: C.H. Beck.]
- Stadler, H.(1998). *Rehabilitation bei Koerperbehinderung*. Eine Einfuehrung in schul-, sozial- und berufspaedagogische Aufgaben. Stuttgart/Berlin/Koeln: Verlag W. Kohlhammer.
- [Stadler, H.(1998). *Rehabilitation in case of disability*. An introduction to school,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tasks. Stuttgart/Berlin/Koeln: Press W. Kohlhammer.]
- Voigt, R.(2008). *Großraum-Denken*. Carl Schmitts Kategorie der Großraumordnung.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 [Voigt, R.(2008). *Great space Thinking*. Carl Schmitt's category of the great space-order. Stuttgart: Franz Steiner Press.]
- Wolgast, E.(2009). *Geschichte der Menschen- und Buergerrechte*. Stuttgart: Kohlhammer.
- [Wolgast, E.(2009). *History of human and civil rights*. Stuttgart: Kohlhammer.]

인터넷 자료

독일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2018. 4. 11).

[German Federal Government,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8/01/2018-01-31-bt-gedenken-ns-opfer.html>(2018. 4. 11).]

MBN 뉴스. <http://mbn.mk.co.kr>(2018. 4. 10).

[MBN News,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3&news_seq_no=3499691(2018. 4. 10).]

크리스찬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2018. 5. 11).

[Christian Today. <http://www.christiantoday.co.kr>(2018. 5. 11)/news/312230(2018. 5. 11).]

논문초록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Hitler)의 정치 이념에 따른 인간관(人間觀) 비판

김기홍 (부산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독일의 제3제국이 추구했던 다양한 정치이념과 사회정책들 속에서 나타난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인간관을 고찰하고, 이를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시 독재정권은 특히 민족공동체 사상을 비롯하여 반유대주의, 생활공간이념,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독일의 국내·외 정책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따라서 형성된 천박한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타민족 및 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관은 근본적으로 민족이나 인종적인 이유로 배타적, 거부적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화평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과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둘째,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우생학적인 인종주의 관점에서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학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수십만 명의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들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이라는 미명하에서 대량 살해하는 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는 히틀러 독재정권이나 흔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조건적,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질서와 구원사역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이나 혹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죽음’을 소멸로 보아 많은 고귀한 생명을 학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음으로서 갈등과 분쟁 등 각종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현실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상호 관련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자신의 목숨이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큰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오늘날 안락사, 인공임신중절, 사형, 자살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서 점점 공리주의적 혹은 현세주의적 사상이 점차 대두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존재 가치 및 의미 등이 점점 더 합리적, 경제적, 생산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시대정신을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왜곡된 인간성 및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논의는 매우 절박하다 할 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 윤리, 인간 존엄성, 히틀러, 민족사회주의, 인간관

